



**봄꽃 '주리안' 출하 채비** 12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8.6도까지 올라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 가운데 광주시 북구 운정동 화훼단지 내 한 농원에서 봄꽃인 주리안의 출하준비가 한창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13일 한 차례 눈 또는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으며,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주 컷오프 2명씩으로 압축

공심위 심사기준...현역의원 상호 다면 평가·정치신인 여론조사 가산점

공천 713명 신청 2.91대1...광주 4대1 전남 3.58대1

민주통합당의 컷 오프(후보 압축)에 2배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다면 평가가 적용되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여론조사에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12일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인 우윤근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호남 지역구의 후보 압축은 2배수를 원칙으로 진행될 방침"이라며 "다수의 후보가 오차범위내의 접전을 벌이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3배수의 후보 압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보다 다면화된 기법이 동원될 것"이라며 "당 지지율과 후보 적합도, 단순 지지율, 교체 지

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원 상호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라며 "정치 신인들은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사직을 하고 공천에서 나서는 사례와 관련, 우 의원은 "일률적으로 감점하기 보다는 각 사례 별로 검토,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성 예비후보들의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는 공심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여성 예비 후보들이 있는 지역의 컷오프 문제는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공천 경쟁은 1:1 구도로 이뤄지면서 치열한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공심위는 13일 공천 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공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컷오프를 위한 공심위의 심사 배점은 서류심사가 50점으로, 항목별로는 정채성이 20점, 당 기여도 10점, 의정활동 및 사회활동 능력이 10점, 도덕성이 10점 등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30점, 면접 심사가 20점이 부여되면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경선이 시작될 예정인데, 19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하지만 광주·전남 등 호남의 경

우, 지역구 실사가 오는 16일이나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컷오프가 3~4일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여론조사가 이르면 13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11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713명이 신청해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11곳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에 49명이 지원해 4.4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8곳)는 32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을 신청, 4대 1을, 전남(12곳)은 43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을 신청, 3.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당리당락 매몰...여야 선거구 획정 또 무산

### “정치권 직무유기” 비난 확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이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는 예초 이날 선거구획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선관위도 이날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지역 입후보자들은 선거

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유권자들도 누가 후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모른채 선거운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특히 '여수가 한 지역구로 합쳐진 다' '담양·곡성·구례를 조개는 민주당안이 통과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면서 광주·전남 지역구는 유지된다'는 등 각종 설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결국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입법부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1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확정돼도 공표까지는 10일 이상이 걸린다"면서 "법대로 한다면 22일부터 기존의 지역구대로 명부를 만들었다가 새 법이 공포되면 새 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부 작성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예비타당성 조사 안거친 낙동강살리기 사업 위법”

### 부산고법 판결

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올 가을 세계비엔날레대회 연다는데

## 세계비엔날레재단 '실체 불명'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와 예산 6억원을 들여 국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시는 올 가을 세계비엔날레재단과 공동으로 '세계비엔날레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이 재단은 각국 비엔날레 재단이 참가하는 대표성을 띤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비엔날레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비엔날레를 소개하고,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강운태 시장(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세계비엔날레재단과 '세계비엔날레 대회' 공동 개최 MOU를 체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오는 3월께 올 추가경정예산에 개최 예산 6억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비엔날레재단은 알수 없는 조직'이라는 지역 미술계의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이 재단에 가입된 각국 비엔날레재단이 한

가입된 각국 재단 한곳도 없어

예산만 날리고 국제망신 우려

곳도 없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제 행사를 할 정도의 미술계 영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 고베비엔날레 등은 세계비엔날레재단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하고, 부산비엔날레 등 일부 재단은 "세계비엔날레재단에 대해 들었지만 의미 없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세계비엔날레재단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의 아테네에도 임시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의 발표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 암스테르담 본부로 추정되는 건물은 공동주택이며, 아테네 임시사무실이라는 곳은 다른 문화기관이 입주해 있고 세계비엔날레재단의 입주 여부는 광주비엔날레재단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세계비엔날레재단에 각국

재단들이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6억원의 예산도 절반 가량이나 해외 인사를 초청하는 경비로 배정됐고 나머지는 학술대회, 포럼, 문화탐방(최장 5박6일), 자료제작 및 행사진행 경비로 책정돼 "돈 들어 사람만 데려오는 국제행사"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10일 "세계비엔날레재단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기침체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 재단이 돈을 마련하기를 기다리거나, 광주비엔날레재단 혼자 대화를 치르거나 아예 대화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시가 세계비엔날레재단과 체결한 MOU 서류 어디에도 세계비엔날레재단의 예산 지원 약속은 찾아 볼 수 없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예산 지원은 구두로만 협의한 사안이며 그 금액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올 총회 여수서 개최  
5월 8~11일 엑스포 개막 직전

전 세계 여성경제인협의체인 '세계여성경제인협회'(FCEM)의 올해 총회가 여수엑스포 개막 직전인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여수에서 열린다.

FCEM은 세계 여성 경제인 간의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무역과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1945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

고 창립했다. 가입국은 프랑스·미국·독일·러시아 등 67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전남도는 도내 여성 경제인 육성을 위해 여수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총회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명전과 함께하는 건강·문화 수도

- / 청자·백자·옹기 '백제권 도공예 클러스터' 조성
- / '우마타운'·'고려청자타운'·'첨단 자동차 타운' 건설
- / 특산물·공예단지·해산물 가공 산업 육성
- / 한방·식생활·휴양 타운 조성
- /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및 확충

**[주요 학력 및 경력]**

-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공보비서관(1급)
-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 現,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KBS 한국방송 PD·기자 (정치·사회부 차장)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합회 의장
- 전국인문노동조합 사무처장
- 한국방송 프로듀서 연합회 사무처장
- 장흥중·조선대 부속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 법대 대학원 졸업(박사)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후원방법**

- 김명전 후원회 계좌로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 입금하신 후 연락을 주시면 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후원안내**

-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 후원금액은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회원이 아닌분도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전 후원회에 연간 5백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 301-0099-0820-81 (김명전후원회)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명전 후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44-37 3층 Tel. 061.473.4399, 4398  
• 이메일 : brightkmj@hanmail.net • 블로그 : blog.naver.com/mjkim2012 • 홈페이지 : www.mjkim2012.com